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소식지

교육목적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은 기독교적 진선미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보건 의료분야의 탁월한 여성 지도자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통해 길러주고자 하는 성취능력을 교육목표로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의사에게 필수적인 의학 지식과 술기,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에 바탕을 둔 기본적인 진료 능력을 확립한다.
- 둘째,** 건전한 윤리관, 사회적 책무성, 여성 리더십과 능동적인 자기개발능력을 함께 갖춘 의학 전문직업성을 확립한다.
- 셋째,** 비판적 탐구 자세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함양한다.
- 넷째,** 이웃과 국가, 나아가 인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함양한다.



02 대학소식

- 2020 졸업간담회
- 에스더빌딩 개설행사

03 학생소식

- 이대목동병원 로봇인지 치료센터 및 김건하 센터장님 인터뷰
- 화경량 수상 소식

05 기획기사

- 미국 의사 10인의 인터뷰

07 특집기사

- 코로나19가 바꾼 새 학기 풍경

08 동문소식

- 하은희 교수님 인터뷰
- 이선희 교수님 인터뷰

10 교수소식

- 교수수상 및 업적

11 의과대학 기금안내

대학소식



2020 졸업간담회 인터뷰



코로나19와 관련된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19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취소되었다. 의과대학의 개별적인 졸업식도 취소되었고, 대신 2020년 2월 19일에 부과대표와 수상자가 참석한 졸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Q 부과대표로서 대표로 졸업장을 받으셨는데, 감회가 어떠신가요?

문선영 선배 : 4년간 의학전문대학원 생활을 함께했던 동기들을 대표해서 졸업장을 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Q 이화 의학전문대학원 생활을 돌이켜 보았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이진주 선배 : 저는 실습 마지막 날이 기억에 납니다. 1년 반 동안 함께했던 실습 조와 칠판에 끝났다고 쓰고 저희끼리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정말 뭉클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했던 동기들에게 고맙기도 했고, 졸업한 이후로는 이제 정말 혼자 공부하고 인턴생활을 해쳐 나가야 하는데 그때가 대학원 생활의 마무리처럼 느껴져서 인상 깊었습니다.

Q 자신만의 공부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문선영 선배 : 본과 1, 2학년 때는 교수님의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2학년 때는 기출문제집을 중점적으로 참고하여 공부했으며, 교수님께서 열심히 설명해주신 부분은 하나하나 꼭 챙겼습니다. 특히 KMLE는 무엇보다도 의학을 공부할 때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보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Q 의학 공부를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진주 선배 : 저희가 아직은 의사가 아니고 학생이라서 조언을 드리기에 부족하지만, 의학을 배우시는 후배님들께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에 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평소에 다소 헛갈리는 시험문제를 풀게 되었을 때 '내가 임상이라면 어떤 처치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풀었어요. 모두 답의 가능성이 있는 선지들 중에서 best answer를 고르는 문제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학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공부하는 학문이니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Q 올해 초에 국가고시까지 끝내고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는데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문선영 선배 : 저는 지난 4년간 공부를 하면서 여성 환자 질환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깊게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외과와 내과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여성 환자를 진료하는데 일조하고 싶고, 환자의 치료를 위한 다양한 접근을 모색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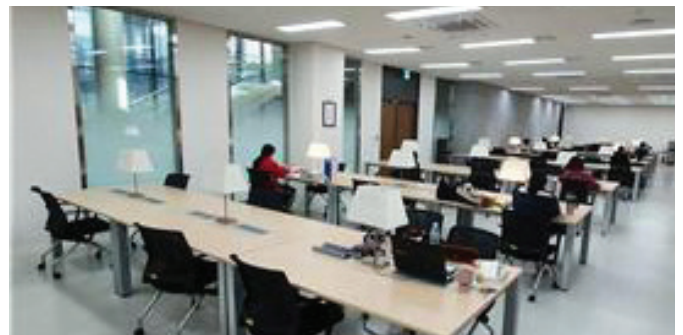
이진주 선배 : 저는 우선 모교에서 인턴을 하게 되었어요. 모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4년 동안 있다 보니 익숙하기도 한 게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또한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다양한데 모교에서 수련을 하면 선택할 수 있는 과의 폭이 넓다고 들은 조언도 선택의 이유가 되었죠. 인턴과정을 밟아가면서 저의 꿈을 구체화하고 싶습니다.

〈의학과 2학년 박수현, 의예과 2학년 권나현, 임나은, 정상현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마곡캠퍼스(에스더빌딩) 학습 환경 개선사업

2020년 3월 완성된 마곡캠퍼스 학습 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되었다. 학습 환경 개선사업은 마곡 캠퍼스 이전 이후 재학생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학습 환경 개선사업의 완성 소식에 지난해 10월부터 학생설문조사에 참여하며 기대감을 표했던 재학생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해당 사업은 에스더 빌딩의 지하 1층과 3층을 대상으로 하여, 먼저 301호에는 다목적 대단위 소그룹학습 활동실이 마련되었다. 증축된 활동실에서 TBL,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증례 토론 학습법 등의 소규모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이 임상 지식을 더욱 심도 있게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 1층에는 택배 보관함 앞 넓은 공간을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다목적 세미나실과 학생 라운지가 새롭게 구축되었다. 다목적 세미나실은 세미나, 회의를 목적으로 한 독립적인 공간으로 그룹 활동이 잦은 재학생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안한 소파와 은은한 조명으로 꾸며진 학생 라운지는 학생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나누거나 식사를 할 수 있어 인기가 좋다. 또한, 학생들이 끊임없이 요청한 개방형 학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측은 자율학습실 공간 일부를 개방형으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개개인의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충족할 수 있게 되어 재학생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이대서울병원 동창회 라운지

2019년 2월 의과대학의 마곡 캠퍼스 이전과 더불어 의과대학 동창회 사무실 또한 이대목동병원에서 이화의료원 마곡지구 이화의대 1층 101호실로 이전하게 되었다. 별도의 회의실도 마련되어 멘토링 등의 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화의료원 병원 내 지하 2층에 동창회 라운지와 동창회 회의실을 신설했다. 동창회 라운지와 회의실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와 본교 동창회의 기부금으로 지어진 공간으로 곳곳에서 이화 선배님들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회의실은 의료원과 본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동거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동창회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회의실 벽면을 가득 채운 기부자 명단과 역대 동창회장님들의 사진들은, 이화의 오랜 역사와 그 자부심을 짐작케 하여 가슴을 벅차오르게 한다. 또 회의실과 라운지에 걸린 회화 작품 역시 의학과 졸업생들의 재능 기부로 자리하게 되어, 학교를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을 느낄 수 있다. 한편, 라운지에는 이대서울병원을 방문하신 모든 본교 졸업생들이 편히 쉬실 공간과 간단한 다과가 동창회의 기부를 통해 마련되어 있다. 해당 공간 취재를 도와주신 심기남 교수님께서서는 의학과 동창을 포함한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신 모든 동창분들의 이용이 가능하니 활발한 사용을 기대하신다고 덧붙이셨다.



〈의학과 2학년 박수현 기자〉

학생소식



학생 기획 기사

이대목동병원 '로봇인지치료센터' 및 김건하 센터장님 인터뷰

2019년 4월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이대목동병원에 도입된 '로봇인지치료센터'는 치매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다양한 인지치료를 제공하며, 인지 훈련 로봇 '보미'를 도입하여 치료의 효과를 높였다. 의대에서 진행되는 연구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로봇인지치료센터에 방문하여 '보미'를 개발하여 개인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건하 센터장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양천구 치매지원센터장을 맡고 계시고,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 연구교수를 역임, 현재 신경과 로봇인지치료센터장으로 활발히 연구를 진행 중인 교수님께 센터에 대한 소개와 후배들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Q 이대목동병원 로봇인지치료센터와 센터장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로봇인지치료센터는 치매 고위험군 환자들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 치매를 예방하는 약이 없기 때문에 운동과 뇌인지 훈련을

3개월 이상 지속해 주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센터에서 진행되는 기존의 뇌인지 훈련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룹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가 맞춤으로 훈련받기 어렵고,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계산이나 언어 능력 등의 인지능력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케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IT 기술을 활용한 인지치료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병원에서도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지금의 로봇 '보미'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Q 기존의 치매예방 프로그램과 달리, 인지 훈련 로봇 '보미'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환자분들의 반응이나 치료 효과는 어떤 편인가요?

A 환자분들은 주로 어르신들이신데, 문제집이나 컴퓨터를 활용한 방식보다 훨씬 재밌어하시고, '보미'를 하나의 존재로 인식하시는 편입니다. 로봇이라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 역시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보미'가 제시하는 프로그램들의 상황들이 실생활과 잘 연관되어 자연스럽게 참여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식을 통해 계산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계산하고 거스름돈을 받는 상황'을 제시합니다. 또한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 전화를 받았을 때 무슨 이야기였는지 기억을 못하시는 환자들에게는 '손녀 친구와의 전화 상황'을 제시하여 인지훈련을 진행합니다. 인지훈련 치료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잘하는 정도가 기록되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환자 맞춤으로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치료사 선생님들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환자가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테스트하고 있고, 뇌의 MRI 변화에 대해서도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소식



Q 로봇인지치료프로그램 외에도 스마트폰이나 챗봇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A 스마트폰이나 챗봇을 통해 가정에서도 꾸준히 뇌인지 훈련을 지속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스마트폰은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반짝반짝 두뇌여행'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는데, 여행 일정에 대한 가이드를 주고 스스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노인분들은 전화, 문자 다음으로 카카오톡을 제일 많이 사용하신다는 점에 착안하여 챗봇 'SEMI'를 개발하였습니다. 어플의 경우 설치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접속률이 낮으나, 챗봇은 카카오톡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자분에게 말을 걸어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저랑 놀아주세요!"라고 보내면, 텍스트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러 선택지를 클릭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정상인이나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도 '디지털 치료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들이 치매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여러 신경과, 정신과 질환 치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적었고, 병원 간의 프로토콜을 맞추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Q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이처럼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국내 로봇 제조업체인 로보 케어와 함께 '보미'를 개발하셨었는데 향후 의학 분야에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A AI나 빅데이터, 디지털 치료제와 같은 기술들이 의학 분야에 쓰인다면,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치료제를 잘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앞으로는 의사의 진단 역량 외에도 환자를 케어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바이오마커 영상을 통해 진단에 대한 정확도와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약을 어떻게 처방하고, 가정에서까지 지속적으로 케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의사로서는 펠로우 과정에서 처음 공대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IT 분야의 전문가는 될 수 없더라도, 협업이 잘 되려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관심과 지식은 필요합니다. 10년 전과는 달리, 앞으로는 융합연구가 많이 생길 텐데, 처음에는 다른 분야가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더라도 끝까지 배우겠다는 자세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눈높이를 맞춰가는 과정이 힘들긴 했지만 그만큼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학생 때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나 인공지능, 통계에 대해서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교수님께서 현재 양천구 치매안심센터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지역주민들의 치매예방과 조기 예방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치매는 아직 예방하는 약이나 치료법이 없습니다. 운동하고, 금연하고, 사회활동, 대뇌활동 많이 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건강한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하죠. 논문에서도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더라도 좋은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편이지만, 30~40대부터 꾸준히 생활습관을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9년부터 치매안심센터를 맡았었는데 예전에는 환자분들을 직접 찾아가도 결과를 잘 안 받아들이셨는데 지금은 조금만 기억력이 떨어져도 오시고는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찍 올수록 빨리 진단을 해서 관리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슈퍼에이저(SuperAger)의 생활 습관 및 뇌 네트워크 특징 규명'에 관한 연구로 대한노인신경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신 교수님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연구를 꿈꾸는 이화의대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제가 이화여대 뇌융합연구원에서도 연구를 했었는데, 뇌과학 분야는 의사가 아닌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때 저의 의사로서의 장점은 환자를 진료한 경험을 토대로 환자들에 대해 훨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환자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의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임상적 경험이 매우 가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꼭 임상을 경험해보라고 조언해 주고 싶습니다. 또, 연구에 있어서 같이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협업하고, 다른 분야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도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세상을 더 넓게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까지 케어하려면 정책적인 면도 중요하고, IT 기술에 관심이 많다면 공대와의 협업도 중요하겠죠.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는데,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화에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심히 찾아보길 바랍니다.

〈의예과 2학년 권나현 기자〉



동아리소식

화검랑, '전국의대생검도대회'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김주희 학생을 포함한 이화여대 B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검도 동아리 화검랑이 1월 7일 양천구민 체육회관에서 개최된 '2020 제20회 전국 의대생 검도대회'에서 단체전 3위라는 쾌거를 거두었다.

한국 의사검도회의 주최로 펼쳐진 이번 대회는 전국 의과대학 소속의 검도 동아리 학생들이 선수로 참여했으며, 총 4개 부분 - 여자 단체전, 남자 단체전, 여자 개인전, 남자 개인전 -으로 나뉘어서 개최되었다.

여자 단체전과 개인전에 참가하게 된 학우들은 입상을 목표로 겨울방학에 들어서자마자 집중 훈련에 돌입했다. 강서 송림 검도관에서 전문적인 가르침 하에 수련을 하게 된 결과 이화여대 A 팀(선봉: 전소연, 중견: 박지혜, 주장: 김소은)이 한림대학교 검도 부를 꺾고 전국 3위라는 영광을 쟁취하게 되었다.

비록 모든 학우들이 입상을 하진 못했지만, 참가자 전원은 방학에 수련에 몰입하며 값진 땀을 흘렸다. 특히 올해 첫 대회 참가로 감회가 특히 새로웠을 김주희 (본과2) 학생을 만나보았다.

Q 이번이 첫 대회였는데, 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

A 학생 때 검도 1단을 따고 학업을 위해 검도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화에 들어와 다시 좋아했던 운동을 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동아리에 가입하고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Q 이번 대회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나, 스스로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한 점이 있었나요?

A 올해 대회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혔던 참가자들과 너무 일찍 겨루게 되어 입상의 문턱에서 좌절하게 된 점이 아쉬웠습니다. 내년엔 성실한 연습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을 구상해 실전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의학과 2학년 박수현 기자)

기획기사



미국에서 의사로 살아가는 10인을 인터뷰하다.



작년 이화여대 동창회 행사에서 미국 의사 생활을 했던 선배님을 뵙고,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 진출해 의사로 사는 삶은 어떻게? 두려움이 앞서는 길을 어떻게 하면 걸어가 수 있을까? 저는 그 해답을 찾고자 이번 겨울 선택 실습을 위해 미국에 간 김에 한인 의사 선생님들을 인터뷰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내과·신경과·소아 재활의학·이식외과·응급의학·중환자 의학을 전공한 아홉 분과 내과를 전공한 후 의사와 학자(Physician Scientist)로 근무하고 계신 한 분까지 총 열 분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소속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는 미국에서 의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유익한 글이 될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을 담아 보았습니다. 여러 난관과 위기의 순간에 이화여대 동창회와 현지에 계신 동문 선배님을 포함한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저의 무모한 도전에 공감해주시고 흔쾌히 도와주신 점 잊지 않고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Q 선생님은 왜 미국에 오게 되었나요? 미국에서 의사로 살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 A** 미국에서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고민도 많이 했지만, '하고 싶은 건 해보자' 싶어 도전했다.
- 한국에선 드물지만, 미국에서 더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었다. (재난 의학, 소아 재활 의학 등은 당시 미국에서 활발한 연구와 함께 특정 수련 과정이 잘 확립되어 있었다)
 - 학부 시절 미국에서 1년 동안 교환 학기를 지내며 살아보니 나와 잘 맞는 것 같았다. 또, 내 분야의 리더가 되고 싶어 미국에서 더 성장하고자 왔다. 옆방에 내가 읽던 교과서의 저자가 연구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매우 고무적이었다.
 -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살게 되었다. 한국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펠로우를 하던 중이어서 미국에서도 의사로서의 삶을 지속하고 싶었다.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족, 직업 등)는 사람마다 다르다. 자신이 원하는지 알고 선택할길 바란다. 아직 불투명해도 괜찮다. 단지 미국에서 살고 싶다면 꼭 의사가 되지 않아도 된다. 더 다양한 길이 많기 때문”

기획기사



Q USMLE 및 레지던트 수련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 A** 졸업 전부터 미국에 갈 생각이 있었기에 본과 4학년 때 Step 2 CK를 국가고시 준비와 병행했다.
- 본과 3학년 중간에 휴식기를 가지면서 영어 공부 및 여행을 했고, 미국 의사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 졸업 후 인턴으로 일하다 중간에 그만두고 USMLE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 졸업 후 모교 교수님을 통해 미국에서 Elective Clerkship 및 연구를 진행했고, 1년 동안 혼자 USMLE 시험을 준비했다.

“전공의로 미국에 들어오는 첫 과정이 제일 힘들었다. 100개가 넘는 원서를 지원해도 매칭이 될지 불확실했고, 초기에는 언어 장벽에 부딪혀 남몰래 눈물도 많이 흘렸다. 하지만, 미국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훨씬 수월해진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졸업하고 한국에서 전공의를 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영 미국을 가기 힘들 것 같았다. 물론 전공의를 한국에서 마치고 미국에서 한번 더 수련 받는 것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을 가기 위해 한국에서 전공의 과정을 밟는 건 잘 생각해보라.”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만 보고, 실패한 사람들의 눈물을 모른다. 해외 의과대학 출신의 의사들이 미국에서 기회를 잡지 못해 의료계 밖에서 떠도는 경우가 정말 많다. 만일 두 명의 지원자가 있다면 미국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고, 비자를 지원할 필요가 없는 미국인을 뽑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한국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미국으로 와도 좋다. 무조건 의료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급선무다.”

Q 비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J1 교환 방문/ H1 전문직 취업/ O1 특기자 비자

- A** J1으로 전공의를 지원해 이후 Waiver를 하였고 현재는 영주권을 받았다.
- J1으로 전공의를 지원하고 이후 연구 실적을 인정받아 O1으로 바꾸었다.
 - Waiver를 하기 싫어 H1으로 준비했다. H1 비자를 오픈하는 병원이 점차 줄어들어서 매칭이 가능한 병원이 적어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 없었다.
 - 영주권이 있거나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그린카드를 받았다.

“비자 문제는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이라 미국에 갈지 말지 고민하는 주요 요소로는 고려하지 않기 바란다. 이미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잘 넘어왔다. 크게 걱정하지 말길 바란다.”

“해당 분야에서 정말 뛰어난 의사거나 의료 낙후지역에서 3년 이상 일하지 않는 이상 영주권을 받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영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명 대학 병원을 포기하고 의료가 취약한 시골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 결국 자신이 왜 미국에 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자유, 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 혹은 과학자가 되고자 한다는 등의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막상 미국에 와서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Q 미국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언젠가 너무 괴로워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적이 있었나요? 어떻게 견뎠나요?

- A** 내가 내린 결정이라 책임지고 싶었다. 중간에 그만두기 싫었고 전공의 수련 과정은 끝이 있는 길이라 버틸 수 있었다.

- 인턴 시작하고 6개월까지는 정말 힘들고 괴로웠다. 그렇지만 나름의 전화위복이 있었던 것이 전화를 받으면 영어가 잘 안 들려 매번 “I'll be right there.”라고 외치며 달려가니 일을 정말 열심히 한다는 좋은 인상을 받았다.
- 시니어 의사가 되면서 의학을 발전시키는 임상만큼이나 해당과 과장, 병원장과 같은 행정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이민자로서 언어 장벽은 항상 있었고, 이로 인해 꿈을 이루는 데 한계를 느꼈다. 미국에서 원하던 수련을 받고,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일은 그동안 바라던 일이라 힘든지 모르고 지냈다. 현재 마음껏 환자를 보는 의사로서의 삶이 만족스럽다.
- 영어는 계속 철뚫고 노력해야 한다. 의학 영어는 오히려 정해진 질문을 반복해서 쉽지만 답답한 한동안 한마디도 못 했다. 일은 잘하지만, 너무 조용하다는 피드백을 받기도 했다. 문화와 언어는 익숙해지는 게 답이다.

“정말 힘들고 지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그 파도가 지나가기를 내버려 둔다.”

“도전정신과 진실성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진실은 어디를 가도 통한다. 전공의 시절 한 인도 의사가 내 공로를 가로챈 적이 있는데, 그때 과장은 나를 보냈다. 아마 진심으로 일하는 내 마음을 보고 느꼈을 것.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실패하지 않는다. 아주 죽기 살기로 하기 때문. 반면 포장으로 씌우는 건 결국 탄로 나게 돼 있다.”

Q 마지막으로 남겨주시고 싶은 말이 있나요?

- A** 지금 명확한 꿈이 없고 잘 몰라도 괜찮다. 오히려 젊은 나이에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건 편향된 시각이 관여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큰 목표를 세우고 객관적으로 현실을 파악하기 바란다.
-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계획을 짜되 플랜 B(Exit Plan)를 고민해 보길 바란다. 매칭을 언제까지 준비할지 기한을 정해두고, 실패할 경우에는 뭘 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준비 기한을 정해두는 것도 좋다.
 - “범사에 감사하길.” 인생이란 생각대로 잘 안 풀리지만 불만을 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더 힘들어진다. 다 가지려는 마음을 버리고 주어진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
 - 연구해서 의사과학자(Physician scientist)가 되는 등 다른 길을 걸어가고 싶은 사람에게 미국이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말에는 본인의 성격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영어는 하면 할수록 느다.
 - 즐기는 걸 하세요. 그게 뭔지 모르겠으면 자신이 언제 제일 행복한지 생각해 보세요.

〈의학과 4학년 남우연〉

특집기사



코로나19가 바꾼 새 학기 풍경

의과대학의 변화 모습 전격 취재

정부의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이후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본교는 2020학년도 1학기 전 기간 온라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사이버캠퍼스를 통해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고, 현장 실습이 필수적인 본과 3·4학년은 임상실습만 엄격한 안전 조치 하에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온라인 강의 수업은 교수자의 재량에 따라 동영상 녹화나 실시간 원격 강의로 진행된다. 예과 1·2학년의 경우, 토론 수업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이외 다른 과목은 동영상 강의를 기한 내에 시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실시간 원격 강의는 우려했던 것과 달리, 학생과 교수진 간 소통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소회의실' 기능으로 조별 토의도 가능하다. 동영상 녹화 강의의 경우,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강의 관련 과제를 제출하거나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비대면 수업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과 2학년 PBL 수업의 경우에도 실시간 강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교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도 현장 수업과 다름없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다. 토론이 필수인 본과 3학년 의료윤리 집담회 과목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본과 3·4학년 임상실습은 직접 병원에 나가서 환자들을 만나는 수업으로,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안전 조치 하에 3월 30일에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병원 매뉴얼을 준수하여 임상실습을 진행하였다.

"이화대의 임상실습 학생 코로나-19 감염 대응지침"

1. 학생은 허가된 장소만 출입하며 병원 내에서 최소한의 동선만 왕래한다.
2. 외래 실습: 예진은 당분간 금지, 외래 참관은 가능하나 학생들은 환자와 되도록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함.
3. 마스크 원내에서 상시 착용. 의대 행정실에서 마스크 수령 및 손 위생을 철저히 지킨다.
4. 구내식당에서 대화 금지. 교내 및 외부에서 다수가 모이는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되도록 가지 않는다.
5. 병원 입구에서 매일 학생증 제시, 발열 체크 후 통과

이외에도 학생들은 매일 "학생 실습 일지"에 병원과 의과대학 내 동선을 기록하여, 1주일 단위로 행정실에 제출하고 있다. 또한 병원 정문을 통과할 때 발열 체크를 하는 등 수시로 체온 측정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은 즉시 행정실로 보고해야 한다.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과대학 마곡 캠퍼스 PBL룸에도 EMR이 설치되었으며, 목동 캠퍼스 컴퓨터실을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동의 학관 801호로 이전하였고,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제 비치를 관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신입생들의 새 학기 풍경도 바뀌었다. 사상 초유의 입학식 취소를 시작으로, 매년 2월 열렸던 신입생 OT도 취소됐다. 이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었으나, 예과 학생회는 단독방과 온라인 카페를 이용하여 '수강

신청방법, 교양 수업, 동아리 소개'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입생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신입생들은 첫 학기 수업이 사이버 강의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효민(의예과 1학년) 학생은 "캠퍼스에서 동기들과 추억을 쌓고 싶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라고 말했다. 의예과 2학년 학생들도 한 학기 동안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된 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의예과 학생 공동대표 임세원, 하보경(의예과 2학년) 학생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입생 OT 취소, 동아리 행사 연기 등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었지만,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라도 활발한 교류와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모두 2학기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캠퍼스에서 동기들과 수업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개강 초반에는 갑작스럽게 온라인 강의로 전환된 탓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수업 시간에 맞춰서 사이버캠퍼스에 접속해도 로그인에 안 되거나 강의 접속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현재는 사이버캠퍼스 서버가 증설되고, 교수진과 학생 모두 온라인 강의 방식에 적응하여 안정화되었다. 물론 염려되는 부분은 여전히 존재한다. 비대면 강의로 인해 교수진과 학생들 간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줄어들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학교 측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유발을 위해 Self-test나 퀴즈 등 대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권복규 교수(의예과)는 온라인 수업 장기화에 따라 학생과 학교 간 접촉이 끊어진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도 학생과 학생 간의 단절이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권 교수는 "학교생활은 학생들끼리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해가는 과정인데, 이 부분이 없어지는 게 아쉽다. 학생들이 실제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메시지를 이용해 서로의 학습을 점검받는 등 학습 동기를 유발하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또 "교수님께 궁금한 것이 있다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사이버 캠퍼스 쪽지나 메일을 보내어 질문하길 바란다. 교수님들 대부분 기꺼이 답을 해드릴 것이다."라고 전했다.

〈학생기자단 의학과 2학년 박수현, 의예과 2학년 권나현, 임나은, 정상현〉



동문소식



하은희 교수님 인터뷰



하은희 교수님께서 이화여대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 과에 재직하시면서 그동안 의료연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임신부와 어린이들이 더욱 건강한 환경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보건 연구를 많이 진행하셨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에는 세계보건기구에 초빙교수로 초청돼 '대기오염과 어린이 건강영향에 대한

지침서'를 집필하셨고, 이듬해에는 국제환경역학회 아시아대표 실행이사로 선출되셨다. 같은 해 6월에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 국민포장을 수상하였으며, 2019년 5월에는 평생 단 한 번만 수상할 수 있다는 이화 학술상을 받으셨다. 올해 3월에는 이화 연구비 우수 교원으로까지 선정되신 하은희 교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었다.

Q 이화 연구비 우수 교원으로 선정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화여대 의과대학에 입학한 이후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지금까지 제 자리에서 선배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이 도와주셨기에 영광스러운 자리들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화 연구비 우수 교원으로 선정된 데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 우리 후배들에게도 감사합니다.

Q 국내 최초로 산부인과와 연계한 출생 코호트를 구축하셔서 환경부에서 어린이 환경 보건 출생 코호트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셨는데요, 진행하신 연구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A 2000년대 초반에 이화여대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님, 예방의학과 박혜숙 교수님과 출생코호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출생코호트라는 연구는 오랜 시간 동안 추적관찰을 진행해야 하기에 기반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연구인데 동료 교수님들 덕분에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2006년에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연구인 MOCEH (Mothers and Children's Environmental Health)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중금속과 여러 대사체가 아기들의 성장과 신경인지발달, 그리고 알레르기 질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대표성 있는 국가 출생코호트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2015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인 KoCHENS(Korean Children's Environmental Health Study)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7만 명의 임신부를 모집하여 출생아를 20년간 추적관찰하는 연구로, 비용과 시간의 문제로 오랫동안 시행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정부기관의 주도로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보건연구를 많이 진행하셨는데 이러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A 제가 1999년에 하버드 교환 교수로 가게 되었는데, 당시 미국에서는 이미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와 같은 대기오염물질들이 출생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여러 자료의 연계를 통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의 대기 환경 자료와 출생 자료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하였

는데, 대기오염물질이 출생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등에서 대규모의 출생코호트가 시작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꼭 어린이를 위한 환경보건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국가 주도의 코호트까지 진행이 되어 기쁘면서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Q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보람차셨던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그때의 경험을 공유해주실 수 있나요?

A 학교에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원인 불명의 의식 저하를 보이는 아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검사로는 도저히 확인할 길이 없어서 가정 방문하였는데, 아이가 모기장에 붙은 납추를 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덕분에 아이의 혈중 납 수치가 높음을 알게 되었고, 적절한 치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태안 유류유출 사건에서 주민 건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을 때나 미세먼지의 노출 저감을 위한 지침서를 만들었을 때 사회에 제가 받은 바를 환원할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전공할 때만 해도 환경역학이라는 분야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개척자의 책임감을 안고 있었지만, 수차례 연구 책임자나 위원장을 지내면서 환경역학이 점점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에 기여했다는 보람을 느낍니다.

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A 개인적으로는 본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출생코호트 연구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연구 등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가 이화의료원에서 연구진흥단장을 맡고 있는데, 임상과 기초의학의 융합 및 중개연구의 활성화와 스마트 헬스케어연구에 힘써 이화의대와 의료원의 연구기반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로써 이화의료원이 서울 강서 지역 스마트시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Q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계신 선배님은 저희 후배들에게는 너무나 존경스러운 선배님이신데요, 후배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수업이나 랩 로테이션을 통해 저의 제자이자 후배들을 만나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그 모습만 봐도 마음이 설렙니다. 저는 이미 존재 자체로 빛나는 우리 후배들이 훗날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빛내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우리 후배들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꾸준함입니다. 저는 30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속해온 두 가지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운동과 영어회화입니다. 매일 1시간씩 운동, 20분씩 전화로 영어회화를 하는데, 체력과 국제무대 활동의 자신감이 이 꾸준한 실천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은 꾸준함은 어떠한 도전도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었습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무엇인가를 실천하면 언젠가 꼭 큰 자산이 되어 돌아오기에 후배들이 꼭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의예과 2학년 정상현 기자)

동문소식



이선희 교수님 인터뷰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선희 교수님께서서는 의료와 사회를 연결하는 경계학문 연구자로서 의사에 머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의료정책 개선을 위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셨다. 더불어 한국보건 의료연구원장, 인증평가원 정책개발실장 등 관련된 공직을 맡아 정책 실무를 겸비하였고 의료 경영 분야에서도 꾸준히 연구하여 여성 최초로 한국병원경영학회장을 역임하셨다.

Q 안녕하세요 교수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의과대학을 1981년에 입학(36기) 하여 본과 2학년 때 1년 휴학한 관계로 88년도에 졸업(37기) 했습니다. 당시 대학생들이 사회 상황과 민감하게 연관되다 보니 사회문제와 의사로서의 미래에 대해 고민이 많았고 의대를 계속 다니는 것에 대한 회의가 들어 1년 쉬게 되었습니다. 휴학하는 동안 다양한 사회 경험도 하고 의학이라는 학문의 다면성을 깨달으면서 방향을 끝내고(^^) 복학하여 무사히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래 의사를 키우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젊은 시절에 잠시 쉬면서 미래 방향을 다졌던 시간이, 이후 열정으로 여러 활동들을 추진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Q 그동안 이화와 함께 한 추억과 애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화 의대 교수로 재직하시는 동안 가장 보람 있던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2016년 미래라이프대학 사태로 학교가 혼란스럽던 상황에서 출범한 공식 교수 조직 '교수평의회'의 초대 의장으로 선출되어 했던 일들이 가장 힘들고도 보람 있었습니다. 임기 동안 16대 총장 후보 선출을 위한 권고안을 만들어 재단에 제안하였고 본교 역사상 최초의 직선제 선거를 주관하여 치렀습니다. 특히 조직 기반이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최초로 전체 교수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이화의 교수님들께서 지혜와 헌신으로 도와주셔서 짧은 시간 동안 선거 절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지요. 물론 최초의 직선제였기에 투표 반영비율에 대한 치열한 논쟁도 있었지만, 낮은 자세로 이화 구성원들의 입장을 경청하고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의 이화에 대한 애정과 긍지가, 오늘의 이화 발전을 지켜온 초석이었음을 확인하는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가장 감동적인 기억입니다.

Q 이 나눔을 통해 이화 의대에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명실상부한 규모의 양 병원을 갖춘 이화의료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의료원의 도약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자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기부가 활성화된다면 의료원이 자리 잡는 데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대서울병원 개원 전후로 경영진을 도와 개원 준비작업을 자문하며 개원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을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관리자들의 리더십과 경영전문성을 강화하는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요즘 인사혁신처 자문 위원으로 타 분야 인재 선발과정에 참여하다 보니 전문적인

리더들의 확보 여부가 조직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대서울병원이 개원 초기인지라 운영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교육에까지 엄두를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고 작은 정성이라도 사람 키우는 마중물에 보태자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이 상황에서 우수한 인재들과 리더들이 양성되어야 조직의 미래도 밝습니다. 이화의 료원이 스마트 조직으로 성장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Q 교수님께서서는 의과대학 졸업 이후 학문을 넘나들며, 의료와 사회를 잇는 의료정책과 의료경영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이 길을 걷게 된 계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A 저는 예방의학 분야에서도 의료와 사회관계에 대한 이슈, 특히 의료정책과 병원 경영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참여해왔습니다. 건강보험제도 연구와 복지부 자문, 의료의 질 평가와 관련하여 심사평가원의 평가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적정성 평가 제도 개선에 참여했고 의료기관인증평가원 설립 과정을 주도하여 정책개발실장으로서 의료기관 평가인증 제도의 기반을 세우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신의료기술을 승인하는 한국보건 의료연구원의 원장을 맡아 의료기술정책의 근거를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관심 갖는 임상 진료 외에 저만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일하길 원했고, 특히 의료와 사회의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분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제도화되는 과정이 왜곡된다면 기술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정책과 병원 경영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기에 이 분야에 대한 미래 의사들의 관심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이화의대 후배이자 제자인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현대 의학은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의료가 화두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시간에도 늘 강조 하듯이 이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전통적인 임상 영역 외의 새로운 시장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두가 생각하는 영역은 안정적이지만 이미 레드 오션입니다. 특히 변화의 방향이 여성 의사에게 유리한 점이 많은 만큼, 불확실하더라도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의사들에 비해 능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다른 이들이 관심 갖지 않는 분야에 도전하다 보니 제가 기여할 수 있는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연한 사고로 도전하시면 더 의미 있는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답니다.

〈의예과 2학년 임나는 기자〉

교수소식



2020학년도
1학기
정년퇴임 교원



손세정(소아과학)

2020학년도
연구실적
최우수 교원



송태진(신경외과학)

2020학년도
연구비
우수 교원



하은희(직업환경의학)

2020년도
의학한림원
정회원 선출



박혜숙(예방의학)

2020년도
'의사평론가상'
수상



이선희(예방의학)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김승철(산부인과학)



배하석(재활의학)

교수수상 및 업적

박혜숙 교수, 2020년도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정회원 선출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혜숙 교수가 2020년부터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임되어 의학한림원의 정책개발위원회 위원, COVID-19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은 한국의학의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의료계 최고의

석학 단체이다. 전문분야별로 11개의 분회 세부가 조직되어 있으며,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고 주요한 의학 분야의 의제를 가지고 포럼, 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박혜숙 교수는 이화여자성장코호트를 구축하여 출생 시부터 사춘기 이후까지 추적관찰을 하면서 태아시기 성장이 출생 후 질환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큰 주제 하에 사회적으로, 또 임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화행림우수연구자 상을 연속 3회 수상한 바 있다. 향후에도 다양한 역량을 바탕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및 의학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 올해 '의사평론가상' 수상

'제43회 의·약사평론가' 시상식...국민 건강 발전 기여 공로 인정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가 지난 6월 29일 열린 '제43회 의·약사평론가' 시상식에서 2020년도 의사평론가로 선정됐다.

JW중외제약이 후원하는 이번 시상식에서 이선희 교수는 의료계의 전문가로서 뛰어난 소통 역량으로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어 소통하며,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전문가적 식견과 비평 역량으로 의료 정책을 논평하고 제언함으로써, 국민 건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이선희 교수는 복지부, 국무총리실, 인사혁신처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 자문에 참여해왔고 한국 보건 의료연구원장,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장 등 관련된 공직을 맡아 정책 실무를 겸비하였다. 또한 의료경영 분야에서도 꾸준히 연구하여 환자 행동과 소비자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병원 마케팅과 의료경영 실증연구들을 발표하였고 여성 최초로 한국병원 경영학 회장을 역임하였다.

올해로 43회를 맞는 '의·약사 평론가상'은 매년 각계의 추천을 받아 건전한 의약 문화 조성에 앞장선 인물을 선정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배출된 200여 명의 의·약사 평론가들은 의약계에서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998년부터는 한국의 약사 평론가회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산부인과학교실 김승철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김승철 교수가 8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승철 교수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국민 건강 보호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김 교수는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으로 재임 시 전국 의료 소외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및 무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한편 김승철 교수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이대여성암병원장, 이대목동병원장, 이화의료 원장,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부인종양학 회장을 맡고 있다.

재활의학교실 배하석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장애인 건강권 향상에 기여한 공로 인정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배하석 교수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배하석 교수는 평소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배하석 교수는 대한재활의학회 정책이사, 대한임상통증의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 등급분류위원장, 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팀 주치로 수차례 패럴림픽 한국 팀 닥터로 활동하는 등 장애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과대학 기금 안내 및 약정현황 명단

1. 의과대학 발전기금 (2019.07.06. ~ 2020.06.30. 기준 약정일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은 혁신적인 교육 과정 개발, 장학 관련 사업, 교수의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등 교육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원명	약정금액	회원명	약정금액
김미정 (의학 89졸)	1,000,000원	지현숙 (의학 70졸)	10,000,000원
하은희 (의학 87졸)	10,000,000원	김혜순 (의학 89졸, 의과대부학장)	10,000,000원
한재진 (의과대학장)	10,000,000원	김경애 (의학 70졸)	10,000,000원
이미숙 (의학 82졸)	1,000,000원	의과대학 39회 동기회	30,000,000원
주문희·주정신건강 의학과의원 (의학 70졸)	10,000,000원		

2. 의과대학 교육인프라 구축기금 (2019.07.06. ~ 2020.06.30. 기준 약정일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은 2019년 초 개원한 강서구 마곡지구 새 병원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의학 교육, 최첨단 연구기반 시스템을 확보하여 세계 여성 의학을 선도하는 의학 교육 기관으로 비상할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인프라 구축 기금의 확충을 통해 최첨단 교육 설비 및 기자재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원명	약정금액	회원명	약정금액
백희정 (의학 83졸)	5,000,000원		

3. 백분의일의나눔장학금 (2019.01.01. ~ 2020.06.30. 기준 약정일순)

고은희(의학78졸), 강예성(의학93졸), 권계숙(의학90졸), 권정미(의학99졸), 이재옥(의학79졸), 서정은(의학09졸), 서한나(의학10졸), 이재현(의학80졸), 성시열(의학81졸), 손현주(의학84졸), 손희정(의학89졸), 김지영(의학89졸), 송선희(의학77졸), 김경효(의학83졸), 송현주(의학00졸), 이정원(의학98졸), 신수아(의학93졸), 이종민(의학80졸), 신정아(의학07졸), 신화자(의학78졸), 이지희(의학84졸), 김광주(의학84졸), 심소연(의학99졸), 김금미(의학89졸), 이지희(의학90졸), 김문정(의학95졸), 김민석(의학과교수), 김병선(의학84졸), 김보경(의학92졸), 김성희(의학87졸), 이현주(의전원07졸), 이훈주(의학07졸), 이항운(의학93졸), 이연주(의학90졸), 이정엽(의학82졸), 이진숙(의학78졸), 임석애(의학91졸), 김수경(의학93졸), 김연신(의학82졸), 김영선(의학94졸), 김영주(의학84졸), 김예미(의학과교수), 김예진(의학93졸), 심현(의학80졸), 안영호(의학과교수), 안정숙(의학83졸), 안혜선(의학84졸), 양나래(의학07졸), 양미혜(의학82졸), 오양자(의학65졸), 오혜숙(의학78졸), 우명숙(의학71졸), 우복희(의학63졸), 우소연(의학96졸), 우재희(의학07졸), 원혜성(의학90졸), 유경아(의학97졸), 유경하(의학84졸), 유금혜(의학00졸), 유남수(의학77졸), 유동원(의학84졸), 유박영(의학74졸), 유시현(의학95졸), 유신애(의학69졸), 유영희(의학75졸), 유채선(의학84졸), 유영인(의학78졸), 윤석애(의학71졸), 윤석완(의학76졸), 윤소윤(의학07졸), 윤수진(의학90졸), 윤혜원(의학80졸), 이경숙(의학82졸), 이국희(의학89졸), 이귀용(의학78졸), 이남경(의학89졸), 이남희(의학79졸), 이령아(의학92졸), 이명희(의학90졸), 이미애(의학82졸), 이소남(의학78졸), 이소재(의학75졸), 이승희(의학84졸), 이영은(의학90졸), 이예경(의학82졸), 이용주(의학77졸), 이윤하(의학91졸), 이은엽(의학75졸), 이자경(의학93졸), 이재옥(의학76졸), 김우선(의학90졸), 김윤희(의학78졸), 김자영(의학84졸), 김정숙(의학83졸), 김중원(의학79졸), 김지영(의학89졸), 김지호(의학89졸), 김진희(의학61졸), 김태경(의학84졸), 김태연(의학05졸), 김태임(의학74졸), 김한울(의학08졸), 김현영(의학78졸), 김현화(의학81졸), 김혜숙(의학78졸), 김혜옥(의학84졸), 김홍희(의학88졸), 김효신(의학84졸), 남은미(의학93졸), 맹신숙(의학92졸), 문경원(의학02졸), 김태임(의학74졸), 문용자(의학61졸), 문인숙(의학78졸), 임선영(의학82졸), 임원정(의학89졸), 문혜성(의학88졸), 민정혜(의학93졸), 임재향(의학과교수), 박경숙(의학86졸), 장은경(의학90졸), 박경화(의학84졸), 박규희(의학90졸), 장혜숙(의학75졸), 전영미(의학82졸), 박미연(의학89졸), 박미향(의학90졸), 전혜진(의학05졸), 전희경(의학89졸), 정미경(의학84졸), 정민경(의학10졸), 박보영(의학05졸), 박선옥(의학74졸), 정성애(의학91졸), 정성철(의학과교수), 박성희(의학82졸), 정수경(의학97졸), 박승희(의학89졸), 박연희(의학93

졸), 박원아(의학90졸), 정연정(의학90졸), 정윤희(의학74졸), 박은미(의학93졸), 정은숙(의학84졸), 정은주(의학90졸), 정인숙(의학77졸), 박은애(의학88졸), 박재옥(의학75졸), 정주혜(의학97졸), 정혜선(의학05졸), 정호인(의학90졸), 박정선(의학78졸), 박준범(의학과교수), 박혜숙(의학91졸), 박혜영(의학82졸), 박혜영(의학85졸), 방문혜(의학84졸), 배기선(의학99졸), 배순희(의학75졸), 배현아(의학00졸), 백세연(의학93졸), 백승연(의학82졸), 백승희(의학82졸), 백혜숙(의학89졸), 백희정(의학83졸), 서동혜(의학95졸), 서란(의학82졸), 서정원(의학82졸), 조기영(의학02졸), 조수진(의학97졸), 조영주(의학84졸), 조은아(의학85졸), 조혜경(의학04졸), 주문희(의학70졸), 주미련(의학74졸), 주재본(의학77졸), 차순재(의학60졸), 차혜숙(의학82졸), 채설아(의학96졸), 최옥경(의학90졸), 최원주(의학79졸), 최윤희(의학99졸), 최은경(의학89졸), 최의숙(의학77졸), 최지하(의학01졸), 최현주(의학87졸), 최혜영(의학85졸), 표영희(의학74졸), 피상순(의학84졸), 하은희(의학87졸), 한경원(의학84졸), 한경희(의학90졸), 한기정(의학89졸), 한지윤(의학75졸), 한혜기(의학78졸), 허금희(의학89졸), 허양임(의학05졸), 하정원(의학92졸), 홍기숙(의학80졸), 황은미(의학01졸), 신혜원(의학78졸), 김미영(의학82졸), 김정애(의학78졸), 서주영(의학과퇴직교수), 오은상(의전원15졸), 이현경(의학96졸), 임혜진(의학83졸), 정영희(의학79졸), 최영신(의학82졸), 한승혜(의학96졸)

4. 기타 발전기금 및 장학기금 (2019.01.01. ~ 2020.06.30. 기준 약정일순)

기금분류	기금명	기부자	약정금액
발전기금	의과대학 융합형리더십교육훈련기금	이선희(의학88졸)	50,000,000원
발전기금	의과대학사랑스실천기금A	오민준(정형외과전공의)	2,000,000원
발전기금	의과대학사랑스실천기금A	조종남(의학75졸)	10,000,000원
발전기금	의과대학학생연구기금	정인숙(의학88졸)	58,382,541원
발전기금	의대연구기금	이화국제재단	35,083,487원
발전기금	의학교육혁신기금	한재진(의과대학장)	20,000,000원
발전기금	의학교육혁신기금	이순남(의학78졸)	5,000,000원
장학기금	Drs. Bumsun & Hyang Won Lee Medical Scholarship	Carol M. Lee	14,658,815원
장학기금	Drs. Moonja Chung & Chanjong Park Medical Fund	정문자(의학66졸)	20,546,765원
장학기금	Hak He Rhee & Chong Soo Pyun Scholarship	이학혜(의학60졸)	38,259,900원
장학기금	Heeyul Lee Cho Scholarship	이화국제재단	17,541,730원
장학기금	Heung Sook Kim MD Scholarship	김홍숙(의학70졸)	2,882,915원
장학기금	Hwaja Lee Rhee Schoarship	이화자(의학65졸)	20,546,765원
장학기금	John D.Yun Scholarship	이화국제재단	2,882,915원
장학기금	Keun Hee Park Lim Scholarship	박근희(의학70졸)	2,882,915원
장학기금	Sunwha Hong Scholarship	홍선화(의학65졸)	20,546,765원
장학기금	강영빈장학금	윤영희(의학70졸)	11,448,268원
장학기금	방봉세장학금	방봉세(체육51졸)	10,000,000원
장학기금	송소선장학금	송소선(의학66졸)	5,000,000원
장학기금	아이들세상의원장학금	이현숙(의학80졸)	100,000,000원
장학기금	연구활동장려장학금	윤주천(의학과교수)	14,500,000원
장학기금	연희장학금	주문희(의학70졸)	12,000,000원
장학기금	의과대학동창회(서동혜)장학금	서동혜(의학90졸)	5,000,000원
장학기금	의과대학동창회(유경아)장학금	유경아(의학97졸)	3,000,000원
장학기금	의과대학동창회(조종남)장학금	조종남(의학75졸)	10,000,000원
장학기금	의과대학동창회(피상순)장학금	피상순(의학84졸)	13,000,000원
장학기금	의과대학동창회(한영자)장학금	한영자(의학62졸)	3,000,000원
장학기금	이순남장학금	이순남(의학78졸)	50,000,000원
장학기금	임당장학금	재단법인임당장학문화재단	50,000,000원

※문의: 의과대학 행정실

Tel [02] 6986-6003~6014 Fax [02]6986-7000 E-mail mediewha@ewha.ac.kr

※ 후원자는 의과대학과 이화여자대학교의 예우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 마곡캠퍼스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우소연(정보관리부/기획부장)

편집위원 정최경희(정보관리부/기획부 차장), 송태진(정보관리부/기획부 차장), 박유경(의과대학행정실)

학생기자단 박수현(의학과 2학년), 권나현(의예과 2학년), 임나은(의예과 2학년), 정상현(의예과 2학년)

객원기자 남우연(의학과 4학년)

디자인·인쇄 정디자인



※ 소식지에 게재할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mail: mediewha@ewha.ac.kr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병원 '보구녀관'